

보험사 일감몰기 규제... 소비자에 손해사정 선임권

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실손보험, 보험사 동의기준 완화
일감몰아주기·불공정 관행 개선
보험금산정 소비자불신 해소 도모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와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산정해 적절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위탁업체가 보험사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계획을 유

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지난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건수는 1만733건(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한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병원

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돼 동의기준을 우선 확대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체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외국인근로자 전용 센터' 명동센터 개설을 기념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여섯번째),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 여덟번째),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사진 왼쪽 일곱 번째), 우뚜라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사진 왼쪽 다섯번째), 이영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왼쪽 두번째),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전무(왼쪽 첫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銀, 명동에 '외국인근로자 전용센터'

환전·외환송금·관광정보 '원스톱'

KEB하나은행은 서울 명동사옥 별관 1층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전용 센터'를 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명동관광정보센터'와 협업을 통해 명동을 관광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손쉽게 방문해 관광정보와 더불어 환전 및 외환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전용 센터'를 주로 지방 소도시와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 민국 서울 관광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금융·문화의 랜드마크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센터 오픈식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 우뚜라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 및 이영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설을 축하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용 센터를 개설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KEB하나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계속해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최다인 19개 일요 영업점 운영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한국어교실 지원 ▲각 국가 기념행사 및 커뮤니티 지원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 행사 ▲글로벌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무에 최적화 된 양방향 번영 단말기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에 배치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월한 금융업무를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

KB국민銀,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아시아뱅크 선정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아시아뱅크(The Asian Banker)지가 주관한 '아시아뱅크 프라이빗 웰스 어워드(The Asian Banker Private Wealth Awards) 2018'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PB 브랜드인 골드앤와이즈(GOLD&WISE)를 내세워 '지혜로운 자산관리'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전국적으로 21개 PB센터와 65개의 GOLD&WISE 라운지를 운영 하고 있다.

이 중 47개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운영 중이며, 고객의 투자성향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이자장사' 잘한 저축銀, 예대마진만 3조

(1~9월)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0.3%p ↑

올해 저축은행들의 이자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대출 확대에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3조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0% 증가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및 보유 유가증권이 모두 늘었다.

자기자본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8% 증가했다. 실적개선에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프로젝트과 이닝(PF)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7%로 지난해 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각각 0.5%포인트씩 높아졌다.

고정이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8%로 지난해 말 대비 5.8%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양호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취급 억제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편의점...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일산에 개점

NH농협은행 365일 연중무휴 운영

NH농협은행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은행지점과 편의점을 결합한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특화점포인 주점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는 은행 365코너 공간과 편의점을 연결해 단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편의점 매장을 통해 주요 농산물 및 농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화점포다. 은행과 편의점이 결합한 국내 첫 사례다.

하나로미니는 기존 편의점 판매품목에 더해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며, 스마트축산자판기를 운영하는 등 기존 편의점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네번째)과 농협 관계자들이 5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개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은행지점 운영시간과는 관계없이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이대훈 농협은

행장은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는 농협 고유의 정체성이 반영된 점포로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車·조선 상생 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신한 두드림(Do Dream) 자동차·조선 상생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조선 부품업체를 대

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원이다.

최근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수출부진,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선 부품업체도 오랜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 대출한도 초과로 금

융조달이 쉽지 않아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출연을 통해 보증료 연 0.5%포인트를 3년간 지원한다. 보증기관 보증료 우대 0.3%포인트를 추가할 경우 관련 업체들에게 최대 연 0.8%포인트의 보증료 우대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